

외국인 학생 한국어 일정수준돼야 선발을

대학원도 한국어 관련 입학 규정 마련해야

영어권 국가 출신인 A씨. 그는 인문사회과학계열의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발표와 질의응답, 토론으로 이뤄지는 대학원 수업은 대부분 한국어로 진행된다. 한국 대학원생끼리 치열한 논의가 오가는 중에 A씨는 몇 글자 아는 한국어 단어가 들리면 구글로 바로 검색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눈치껏 이해하려고 애쓴다. 그것마저도 안들리면 수업교재 영어원서를 꺼내 수업시간 내내 책만 읽는다. 영어를 잘하는 다른 대학원생이 옆에서 부지런히 통역해주지만 전담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답답함을 느낀다.

그는 “내가 한국어를 못한다는 걸 학교 측에서 알고 입학허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못하면 수업 따라가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제주대의 외국인 지원자격을 보면, 학부생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성적 3급 이상인 자 또는 한국말인증시험(KLPT) 350점 이상인 자(국어국문학과는 TOPIK 4급 이상 또는 KLPT 350점 이상자만 지원가능)’ 이거나 ‘영어 TOEFL 550, CBT 210, iBT 80, IELTS 5.5, TEPS 550 이상인 자 또는 기타 국가공인영어능력평가시험에서 그에 상응하는 점수를 취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대학원의 경우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으로서 정규의 대학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1년 8월 취득 예정자’로 돼 있다.

국제교류본부의 고승준씨는 “대학원의 경우 언어 관련 규정은 없고 암묵적 동의에 의해 ‘영어’나 ‘한국어’를 하면 지원자격이 주어진다”며 “학과 교수님들이 외국인의 어학능력이 학과 수업을 따라가기에 무리가 없다

고 판단하면 딱히 어학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영어권 국가의 외국인들은 ‘한국어를 못해도 수업에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입학하지만 막상 수업에 참여하려면 일정 정도의 한국어 실력이 요구돼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불편은 외국인 뿐만 아니라 한국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법정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B씨는 “학과 특성상 발표가 많은데 교수님들이 외국인 학생 배려 측면에서 영어와 한국어 둘 다 쓰면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수업이 느슨해진다”며 “한국어로만 토론해도 수업시간이 빠듯한데 이중 언어를 쓰니 심도 있는 토론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 입학 규정이 비영어권 국가 외국인들에게는 차별이라는 지적도 있다. 중국에서 온 유학생 C씨

는 “영어권 국가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의무사항”이라며 “영어권에서 온 외국인들에게 혜택이 많은 것 같아 부러움을 느낄 때가 많았다”고 말했다.

제주대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 외국인 대학원은 162명, 대학원생은 122명이다. 이 중 미국, 영국 등 영어권 국가 학생은 대학원과 대학원생 각각 3명이다. 중국에서 온 유학생은 대학원생 148명, 대학원생 70명으로 가장 많다.

전남대의 경우 원활한 수업진행과 외국인 학생의 수업참여를 위해 한국어 자격증을 제출하거나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전남대 국제협력과의 원애련씨는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의 경우 졸업에도 제한이 생겨 한국어 공부를 소홀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유학생 D씨는 “모든 외국인 학생이 수업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학교측의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성미 기자

평생교육원의 ‘친절한 변신’ 돋보여

‘캠퍼스 친절 리더’로 서비스 질 높여 훈훈

대학행정에도 수요자 중심의 친절서비스 바람이 불고 있다. 수직적이고 경직된 행정문화에서 벗어나 대학의 수요자인 학생, 교수, 도민들의 요구에 발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다.

평생교육원에서는 지난 2월 사무실 책상을 은행창구처럼 바꿔 직원들이 민원인들과 대면하도록 했다. 칸막이로 막혀있어 소통이 단절됐던 기존의 사무실 구조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했던 것이다.

안성수 평생교육원장은 “원스톱 지원체제로 행정처리를 효율적으로 함과 동시에 수요자에 대한 인간적 존중의 차원에서 사무실 구조를 바꾸게 됐다”며 “권위적으로 행정처리를 하기 보다는 직원과 민원인이 직접 대면하며 인간적인 존중을 실현하니 평생교육원을 찾는 분들에게 호응도 좋다”고 말했다.

평생교육원이 사무실 구조를 바꾸며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시작한 후, 평생교육원 행정실을 찾는 일반인들의 발길도 부쩍 늘었다. 행정실을 찾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던 이들도 보다 쉽게 찾아오게 된 것이다.



대학행정에도 수요자 중심의 친절서비스 바람이 불고 있다. 평생교육원은 지난 2월 사무실 구조를 칸막이 대신 은행창구처럼 바꿔 직원과 민원인이 대면하도록 했다.

평생교육원 강의를 듣는 황길수(55)씨는 “전보다 소통을 하기 쉬워니 거리감이 줄어들어 행정실을 자주 찾게 된다”며 “대학의 행정서비스도 더이상 상하관계를 벗어나 같은 위치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총무과에서는 대학구성원들에게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월 ‘직원 친절도 향상 방안’을 마련해 칭찬·불편의 소리를 개선하고 일일민원도우미제도를

를 정착시키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더불어 지난 7월 15일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고객만족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김형길(경영학) 교수는 “고객만족을 지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대변화의 흐름”이라며 “이제는 대학행정에서 사무실 구조의 변화 뿐만 아니라 대학의 고객인 학생과 교수,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실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희 기자

BK21 연구팀 교과부 연차평가서 1위

친환경 해양바이오팀 SCI급 논문 42편 발표

해양의생명과학부 BK21 연구팀이 연차평가에서 지역·전국단위 1위를 차지했다.

교육과학기술부 발표에 따르면 해양의생명과학부 ‘친환경 해양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사업팀(팀장 이재희 교수)’은 올해 ‘제5차 두뇌한국21(BK21) 연차평가’에서 서울대·고려대 등이 속한 핵심과학기술응용농수산분야 전국단위 8개 연구팀 중 1위를 차지했다. 더불어 같은 학부 ‘아열대 해양생명 국제인력양성팀(팀장 최광식 교수)’도 지역단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친환경 해양바이오팀은 3명의 교

수와 12명의 대학원생이 참여해 지난 1년간 총 42편의 국제저명학술지(SCI)급 논문을 발표했다.

아열대 해양생명팀은 교수 4명과 11명의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이 참여해 28편의 논문을 국제저명학술지에 발표했다.

BK21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원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참여 교수 및 대학원생의 논문, 연구비, 학술대회 발표 및 교육여건 등을 평가한다.

한편, 최근 5년간 BK21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박사학위 졸업생들은 군산대 교수, 한국해양연구원 선



이재희 교수
해양의생명과학부



최광식 교수
해양의생명과학부

임연구원, 기초과학지원센터 선임연구원 등으로 취업했다. 외국인 유학생 졸업생들도 본국에 돌아가 국제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해양의생명과학부는 어류 백신개발, 해양바이오산업 등의 연구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고용희 기자

제6회 아라여성축제

오는 29일 개최

제6회 아라여성축제 ‘성스럽고 성’스러운’이 女보세요 총여학생회(회장 양혜경) 주최로 오는 29일 한라타워와 학내 곳곳에서 열린다.

성이라는 주제를 통해 남녀가 서로 갖고 있는 선입견의 차이를 줄이고자 마련된 이번 축제는 남학생들의 참여도 동시에 유도할 계획이다. 행사일 오후 2시부터는 성교육전문 강사 구성애씨가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대처에 대해 강의한다. 오후 6시부터는 본관 앞 잔디광장에서 <여보Show!> 장기자랑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건강상태 측정, 올바른 피임법, 생리주기 팔찌 만들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수시2차모집 경쟁률 3.85대1

2012학년도 수시2차모집 원서접수 마감결과 651명 모집에 2508명이 지원해 3.85대1로 작년(3.1대1)보다 경쟁률이 다소 높아졌다.

올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학과는 수의예과 일반학생전형으로 8명 모집에 128명이 지원하여 16.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과대학으로는 간호대학이 17명 모집에 178명이 지원하여 10.5대1의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원서접수 마감일에 전체지원자의 45.6%인 1143명이 지원하여 마지막 눈치작전

이 치열했음을 알 수 있다. 올해 처음 도입된 특성화고등학교졸업 재직자 특별전형은 지원자가 한명도 없었다.

합격자발표는 수능시험성적 발표 후인 오는 12월 9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수시모집 합격자 중 미등록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합격자를 선발하며, 추가합격자 선발을 위한 예비후보자는 합격자 발표와 함께 발표한다. 전형유형과 모집단위별 경쟁률은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로잡습니다

제주대신문 9월 7일자 1면 ‘제주대 교원양성기관 평가 C등급’ 기사 중 “교직과정 정원이 20%, 교육대학원 정원이 50% 감축된다”에서 “교직과정 정원이 20%, 교육대학원 교직과정 승인 정원이 50%로 감축된다”로 바로잡습니다.

해당 부서와 단과대학,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특성화 사업단 현장 - 제주물산업인재양성센터 ▶ 4면 캠퍼스 리포트 - 장애를 보는 왜곡된 시선 ▶ 6면 복학생들의 대학적응기 ▶ 8면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NRF 한국연구재단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Tourism & Leisure Education Center

21세기 제주특별자치도의 NEW 비전!

관광·레저 선도산업 인재양성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준비합니다.

컨벤션 기획사 2급 자격증 “취득”

윤소연(관광개발 2011 졸업) 김혜지(관광개발 4)
김연선·부정훈(관광경영 4)
김태현·박강미·이현규·정문영(관광경영 3)

MICE 인재양성 지원 및 운영 프로그램
공인어학능력 향상 지원/ 창업동아리 및 취업동아리 운영 지원/ 장·단기 해외연수 지원/ 기업맞춤형 강좌 운영 지원/ 인턴십 및 현장실습 지원/ 장학금 및 장려금 지원 등

참여학과(전공)
경영학과, 관광경영학과, 관광개발학과, 무역학과, 컴퓨터공학과, 경영정보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식물자원환경전공,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문화조형디자인전공, 레저스포츠전공

[문의]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3층 8320호 / <http://mice.jejunu.ac.kr>

사설

국제화에 좀 더 박차를 가하자

대학들이 국제화를 넘어 글로벌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수의 교환학생 파견에 머물던 국제교류가 복수학위과정, 해외현장학습 등의 다양한 해외파견 프로그램으로 확대되며 해외에서 수학하는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비례해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학생 수도 눈에 띄게 증가해 대학마다 국제학사, 인터내셔널 빌리지, 글로벌 존 등의 영어 전용공간이 속속 설치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각종 대학평가의 국제화지표도 해외파견 교환학생, 국내 외국인 학생, 외국인 교수, 영어강의 비율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0년도 중앙일보 대학평가 국제화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서울의 모 대학은 한 학기 이상 외국대학에서 수학한 재학생, 외국인 학생, 외국인 전임교원, 원어민강의에서 모두 30%를 달성하겠다는 소위 3·3·3·3 전략을 선언하였다. 제주대와 규모가 비슷한 한 지방대학은 년 400여명의 학생들을 해외로 파견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대는 2010년도 중앙일보 평가에서 국제화 부문 순위가 93개 대학 중 83위에 그쳐 최하위권을 맴돌았다. 교육여건 및 재정부분(4위)에 견주어보면 선뜻 이해되지 않는 순위이다. 여러 가지 변명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대학당국의 국제화 노력과 투자가 소홀한 데 그 원인이 있다. 단적인 예로 아직까지 우리 대학은 가장 보편적 방식의 국제교류, 즉 우리 대학에서 등록하고 영어권 국가의 자매결연 대학에서 1년간 무료로 수학하는 교환학생이 한명도 없다. 국제화에 앞선 대학들은 이미

1980년대부터 이런 식의 교환학생을 매년 수십 명씩 선발해 해외(주로 미국)로 파견하여 왔다. 우리 대학도 근래 들어 교환학생을 선발하지만 영어권의 경우 아주 기형적인 형태라서 학생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고 효과도 미미하다. 예컨대 한 학기 등록금이 1,000만원이 넘는 사립대학에 등록을 해야 한다든지 외국대학과 우리 대학 양쪽 모두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는 참된 의미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없다.

예전과 달리 영어권 국가의 대학과 교류협정을 맺기가 어렵다는 사정도 이해된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제정을 투입해야 한다. 보직교수나 행정직원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별재용을 해서라도 전문가를 영입해 세계를 누비게 해야 한다.

혹자는 소수의 학생을 위해 제정을 집중 투자하는 불합리성을 지적한다. 그러나 국제교류는 단지 교류차원을 넘어 그 부대효과가 엄청나다. 예컨대 우리 대학에서 등록하고 영어권 국가에서 1년간 수학하는 교환학생을 매년 10명 선발한다고 가정해보자. 이에 선발되기 위해 영어공부에 올인 할 수많은 학생들과 그로 인한 면학분위기가 조성, 그리고 장기적 안목의 우수인력 양성 효과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하겠는가. 영어권 국가와의 교류증진이 곧 영어교육 강화, 우수학생 유치, 캠퍼스 글로벌화의 지름길임을 재차 강조한다.

소통의 에피소드: 국수집과 안철수

기술진보의 주기가 더욱 짧아지면서 우리는 패속, 대량, 익명의 천국에서 질주하고 있다. 조작 정보통신의 엄청난 진화 이면에는 소통의 붕괴라는 역전현상이 벌어지며, 갈무리된 지식보다는 허접한 정보와 범죄 수준의 악플이 난무하는 집단적 아만시대로 퇴보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

사회화에서는 그 현상을 열역학 법칙에 빗대어 정보 엔트로피의 증가라고 한다. 어차피 에너지는 더욱 복잡한 상태가 되며, 그 결과 재생가능성과 활용도는 반비례로 낮아진다. 사회현상에서도 비가역적으로 진행되면서 골병이 든 소통은 효율성 제고라는 미명하에 사회를 지속가능하지 않은 붕괴의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건강한 소통의 바탕에는 단순한 이해타산을 넘어서는 단골과 사랑의 정신이 있다. 다시 찾아 얘기를 나누며 삶의 가치를 가다듬을 수 있는 곳인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곳인가. 제주도 서남쪽 어느 국수집, 밀면과 돔베고기는 소문대로 일품이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었고 종업원도 나를 뜨내기로 취급한다. 심지어 얼마 전부터는 맛집 홍보에 들며 대기순번표까지 자랑스럽게 나누어준다. “몇 번 손님 입장하세요!” 주인과의 덕담은 커녕 순식간에 먹고 사라져야하는 전쟁터... 아무리

좋게 보아도 이건 문화는커녕 국수그릇만 팔아치우는 싸구려 마인드에 불과하다. 오만불손의 극치가 그 집의 지속가능한 경영철학은 아닐텐데...

고객은 사료를 기다리는 짐승이 아니다. 음식과 함께 집의 향기를 기대하며 몇 년을 다녔지만 단골을 맺지 못한 식당, 이제 다시 찾을 이유가 없다. 그런가하면 달랑 3천원 짜리 멸치국수 내놓는 표산 허름한 집, 수많은 등산객이 오가는 휴게소, 하귀 감자탕 아주머니의 느슨한 덕담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비단 관광지 업소뿐만 아니라 일상사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아닐까...

교수와 학생은 등록금을 매개로 지식을 팔고 사는 비즈니스 파트너인가, 소통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식과 지혜로 살맛나는 미래를 같이 일구어가는 공동주체인가? 여야를 막론하고 건강한 소통을 목쇄해온 바이러스 정치권이 안철수 쓰나미 백신 한 방에 회청거리고 있다. 정치현오에 대한 단발적인 반응인지 국민의 준엄한 표심인지 선불리 예단할 수 없지만, 적어도 IT 시대의 아이러니 그거 소통의 미학에 겸손하게 정성을 기울여 왔다는 반증임에 틀림없다. 참단, 속도, 이해타산의 그늘에서 아슬라진 소통의 가치를 되찾아야 비로소 이 사회가 지속가능한 무엇(Sustainability)이 되지 않겠는가?

영어교육 강화 성패, 준비와 투자에 달렸다

관계 기관 및 부서 워크숍 가져

영어교육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 지난 15일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기획평가과 주최로 열린 워크숍에는 교무과, 학사과, 국제교류본부, 기초교육원, 외국어교육원, 정보통신원, 영어교육과, 초등영어교육전공 전임교원 등이 참여했다.

워크숍은 영어교육 강화를 위한 각 부서별 추진 계획 발표와 그에 따른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기초교육원은 수준이 향상된 학생들의 고급학습과정 진급체계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기초교육원은 “합리적인 수준진단을 통해 이학실력이 향상된 학생들이 더 수준 높은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수준진단의 척도로 수능점수·토익과 같은 공인어학점수를 활용하거나, 대학 자체적으로 수준진단평가를 만들어 평가하는 방법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국어교육원의 발표에서는 외국

어교육원의 강의시설 및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외국어교육원은 “현재 외국어교육원 내 노후화된 강의시설이나 강의에 필요한 기자재의 미비로 수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외국어교육원의 교육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 외국어교육원은 자체 문제점으로서 토익강좌의 수강생 감소와 다양한 외국어 프로그램 부재 등을 꼽았다. 외교육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토익강좌 외부업체 위탁, ESP(English for Specific Purpose) 프로그램 신설 등의 방안을 냈다.

학사관리과의 발표에서는 대학 내 영어강좌별 참여인원은 줄고 있으나, 강좌당 운영비용은 늘고 있는 문제를 거나, 대학 자체적으로 수준진단평가를 만들어 평가하는 방법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국어교육원의 발표에서는 외국



지난 15일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영어교육 강화를 위한 워크숍에서 담당부서 직원들이 질의 및 응답시간을 갖고 있다.

이 겨우 5%인 현 상황에서 영어강좌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사관리과는 기초교육원과 함께 영어 교과목별로 수강정원에 차이를 두는 교양영어 소단위 수강인원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대안을 냈다.

학생복지과는 2학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영어우수장학생제도를 학생들

에게 많이 홍보해 외국어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제교류본부는 “교양영어 강의인 영어읽기·쓰기·회화 300을 학생들이 듣고 해외연수를 보내도록 하겠다”며 “강의에서 3.0 이상의 성적을 거둘 경우 우선 선발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명지 기자

교과부,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발표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 정부예산 등 총 2조2500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1조5000억 원은 학생장학금으로, 나머지 7500억은 동결을 약속한 대학에 등록금 5% 인하를 위한 인센티브로 쓰일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한나라당과의 협의를 거쳐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8일 발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대학생이 내야할 등록금이 평균 5%정도 낮아질 것으로 본다”며 “7분위 이하 학생 평균 22% 이상의 등록금 부담이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내년 국가 장학금 체계 개편과 맞물려 단행된 것이다. 현재 저소

득층장학금으로 분류된 기초생활수급권장학금, 차상위계층 장학금,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이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I, II 유형으로 개편된다. 국가장학금 I 유형은 현행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족에 지급되던 장학금을 소득3분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로써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최대 450만원, 1분위는 225만원, 2분위는 135만원, 3분위는 9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전국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7분위이하 학생 수를 기준삼아 학교별로 배분해 학교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바뀐다.

김명지 기자



지난 7일 김녕미로공원에서 직접 야간개장을 기획한 제주대 학생들이 수익금을 발전기금으로 허향진 총장에게 전달했다.

김녕미로공원 야간개장 수익금 발전기금 전달

김녕미로공원(설립자 더스틴 전 제주대 교수)에서 직접 야간개장을 기획·운영한 제주대 학생들이 수익금 450만원을 대학발전기금으로 지난 7일 제주대에 전달했다.

발전기금을 전달한 동아리 ‘HIRA’와 관광경영학과 독서토론 동아리 ‘PINE TREE’의 학생들은 방학기간이었던 지난 7월 15일부터 44일간 김녕미로공원에서 야간개장

을 직접 운영하며 생긴 수익금을 학교에 직접 기탁했다.

이와 함께 김녕미로공원은 지난 14일에도 외국인 유학생, 교류수학생 장학금 등을 위해 써달라며 발전기금 5천만원을 제주대에 전달했다.

한편 김녕미로공원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교수채용인건비 등으로 총 3억 7900만원을 제주대발전기금으로 전달해왔다.

제31회 백록학술상 현상 공모 실시 안내

언론미디어센터에서 제주대신문 창간 57주년을 맞이하여 제31회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현상 공모하고자 합니다.

- 1. 행 사 명 :** 제31회 백록학술상
- 2. 응 모 자 격 :** 제주대학교 재학생(대학원 박사과정은 제외)
- 3. 응 모 분 야 :** 일반논문 A4용지 10매-30매 내외(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이미 발표된 논문이나 학위논문 제외)로 작성하고, 논문 출력물과 논문 파일은 CD로 동시 제출, 제출된 원고는 반환되지 않음.
- 4. 시 상 :** 학부생/대학원생 (당선: 총장상 및 상금 50만원, 가작: 총장상 및 상금 30만원) ※ 수상인원은 논문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
- 5. 접 수 마 감 :** 2011년 12월 12일(월) 18:00까지
- 6. 접 수 장 소 :** 언론미디어센터 행정실(취업전략본부 3층)
- 7. 당선작발표 :** 2012년 신년특집호(1월 4일자)
- 8. 심사및시상 :** 심사위원회에서 추후 결정

제주대병원 소식

제주지역암센터, 대장암 연구기관 선정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지역암센터(소장 장원영 교수)가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추진하는 ‘2011년도 암정복추진연구 개발사업계획’에 대장암 관련 연구분야에 공모해 최근 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장원영 소장을 비롯한 대장암연구팀은 앞으로 5년간 15억원 규모의 국비지원을 통해 제주지역 대장암의 예방·진단·치료 기술의 실용화와 임상적용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제주지역암센터 장원영 소장은 “제주지역암센터는 지난 2006년 보건복지부 지정 이후 제주지역 암정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에 시작하는 대장암 관련 종합연구는 제주도민의 대장암 예방과 치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토피 zero 프로그램 무료 운영

의학전문대학원 환경보건센터(센터장 홍성철)가 제주대학교병원(병원장 강성하)과 함께 제주도민의 아토피질환 관리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매주 화요일 제주대학교병원 2층 세미나실에서 ‘아토피 zero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한다.

제주지역에 아토피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아토피



장원영(외과) 교수

질환(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자녀를 둔 보호자 및 환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의료정보제공, 아토피질환의 관리 능력 향상, 체험활동, 정보교류 및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아토피질환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함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아토피질환 전문의의 교육 및 상담, 천연재료를 이용하여 아토피 피부 관리용 비누 및 보습제 만들기, 알레르기 유발 원인물질에 대한 피부반응검사 29종(꽃가루, 곰팡이, 진드기, 음식물 12종 포함), 알레르기비염 환자의 올바른 코 세척 방법 익히기(노즈비데 제공), 아토피질환 아동 양육자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활동 등이다.

아토피피부염과 알레르기비염을 앓고 있는 환자나 보호자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선착순 모집하고 있으며 자세한 참가방법은 환경보건센터 홈페이지 <http://www.e-safejeju.or.kr>에서 확인 또는 전화 754-3808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대병원, 귀의 날 도민강좌 개최

제주대학교병원(병원장 강성하)은 지난 7일 병원 2층 대강당에서 귀의 날(9일)을 맞아 귀울림(이명)관련 무료도민강좌를 진행했다.

도민강좌에는 최승호(이비인후과) 교수가 강사로 나서 “나를 귀찮게 하는 귀울림(이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펼치고, 질문과 답변 시간을 통해 귀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했다. 이날 도민강좌에는 150여명의 도민이 참여했으며, 강의가 끝난 후에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청력검사를 시행했다.

“구체적 대안 제시 없어 유감” 지적

중장기 발전계획 최종공청회 열려

제주대는 지난 9일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교수, 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제주대의 교육환경과 교대 통합 이후의 대학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적 지향점 및 발전방안 제시를 위해 열렸다.

이 공청회에서는 09년도 제주대 자체평가와 주요 지표들을 토대로 SWOT 분석한 내용들이 보고 됐는데 △신입생 충원률이 안정적이고 전 입교원 확보율이 국내 상위권 수준 △교육여건 및 지원체제 자체평가 결과 ‘적절’하다는 평가가 많다는 점에 서 인적 여건은 우수한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나 △학생 중도탈락률이 국립대 기준으로 높음 △국제화 관련 지표 모두 ‘미흡’ △학생의 입학 후 대학생활의 만족도 및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 등을 들어 여전히 개선될 부분들이 많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 △우수 강의 공개 확대 및 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 강화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 제고 △저학년부터 포트폴리오 상담 강화 △정부 지원 대학생 해외 인턴십 사업 적극 활용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내용 보고가 끝나고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양길현(윤리교육)교수는 “제주대는 특성화와 관련해서 해양, 관광, 아열대, 교대 등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직되어야 하는지, 다른 예비분야를 하나라도 제안한다면 어떤 게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응역 담당자는 “제주대 특성화 산업을 분석하면서 느낀 것은 공식적인 추진 주체가 불명확하고 외부 프로젝트 따를 때마다 조직되고 있다”며 “외부 프로젝트를 끌어들이 수 있는 전문팀이 필요하고 공식적으로 신장하고 확정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고대만(윤리교육전공)교수의 “제주대와 제주교대 통합한 이후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발언에 대해 담당자는 “통합 이후 시너지 효과를 나타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난 9일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 공청회’에서 발전계획 최종보고가 발표되고 있다.

구체적인 주제 설정은 아직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고 교수는 “‘최종보고’라는 것은 실행 전 단계까지 해서 최소한 중간까지 실행할 수 있게 마련해야지 너무 일반적인 얘기만 하는 것 아니냐”며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허창진 총장은 “앞으로는 학생들 취업률 몇퍼센트까지 상승시키겠다 하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각 부서별 워크숍을 가져 브레

인스토밍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총장은 이어 “통합 이후에 초등 교육 강화만으로는 안되고 한국교원 대처럼 ‘교사 통합과정’ 등을 계획한다던지 여러 아이디어들을 생각할 수 있지 않냐”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크게 개선될 수는 없고 솔로몬의 지혜와 부서별 협력이 있어야 대학이 도태되지 않고 발전한다”고 말했다.

현성미 기자

부속시설 탐방 <7> 증강현실연구개발센터

3D 콘텐츠로 제주관광 활성화 앞장

멀게만 느껴졌던 ‘3D’는 이제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니다. 3D 영화, 3D 게임, 3D 놀이기구 등의 다양한 3D 활용 콘텐츠들이 어느덧 우리들 생활 속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대 증강현실연구개발센터는 이런 시대적 요구에 맞춰, 3D를 접목한 제주의 콘텐츠를 만들고 육성해 나가는 중시 역할을 한다. 제주의 다양한 문화와 관광 가치를 지닌 콘텐츠들이 3D 기술의 옷을 입고 화려한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 지원을 받는 증강현실 연구개발센터는 3D 기술을 이용해 제주의 여러 문화와 관광적 가치를 지닌 브랜드들을 상품화하고자 설립됐다. 작년 11월 자연대학 1호관에 문을 연 센터는 총괄 책임자 이봉규(전산통계학과) 교수와 실무 책임자 1명, 박사급 3명, 학사급 2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돼 있다.

센터는 지식경제부에서 시행하는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인 ‘증강현실기반 체험형 개발·관광·테마파크상품 개발기반구축사업’을 작년 7월부터 3년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31억 원 가

량이 조성됐다. 증강 체험형 상품이란 실제계의 다양한 상품과 테마형 3D 콘텐츠를 접목시키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제주의 관광지나 특산물 등을 테마로 만들어진 콘텐츠들에 3D 기술을 넣어, 실제 장면과 같이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내는 것. 눈앞에서 설문대할망이 움직이고, 옥돔이 바다를 헤엄치는 가상현실이 펼쳐지는 것이다. 센터가 1차 년도에 제작한 콘텐츠는 주로 관광 테마와 관련된 것들이다. 설문대할망, 향파두리, 성산 일출봉과 같은 관광 콘텐츠, 한라봉, 제주마, 태우, 옥돔, 돌하르방 등과 같은 제주의 특산물 콘텐츠들이 3D 기술과 결합해 기획·제작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센터는 제주 관련 테마 발굴과 도내 기업 지원을 위한 지원기반구축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해 증강 현실을 이용한 투표 시스템을 개발, 제주 공항, 서울 코엑스, 성산일출봉, 천지연폭포, 제주도청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김영주 팀장은 “제주의 전체 산



3D기술로 만들어진 옥돔이 3D 바다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다.

업 가운데 관광 산업 부분이 많은 GDP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본 센터는 이러한 지역적 상황에 발맞춰 제주의 다양한 관광 상품을 3D 콘텐츠로 구현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를 통해 관광객을 비롯한 소비자의 상품 구매력을 높이는 동시에, 제주만의 특색 있는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전달해 제주의 상품 브랜딩 가치를 올리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지난 19일 윤리교육과 교수들이 2년간 심사일한 모은 1억 1000만원을 윤리교육과 학생들을 위한 발전기금으로 기탁했다.

윤리교육과 교수들 발전기금 전달

학과 학생 지원 위해 1억 1천만원 기탁

윤리교육과 교수들이 2년간 심사 일한 모은 1억1000만원을 윤리교육과 학생들의 역량 강화와 복지에 써달라며 지난 19일 발전기금으로 전달했다.

학과 단위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1억원 이상을 발전기금으로 모은 것은 드문 일이다. 윤리교육과가 이번에 조성한 1억 1000만원의 발전기금은 내년에 학과 설립 30주년을 맞아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를 올리는 데

쓰고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금 출연을 부탁하여 모은 것이다. 총 121명이 100만원 또는 50만원씩 심사일한 모은 게 1억원이 넘었다.

윤리교육과는 “이 기금을 통해서 해마다 발생하는 과실금을 가지고 학생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도록 할 것”이라며 “발전기금을 통해 매해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해 학과 학생들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대학 과학문화지원사업 선정

과학교육 강화사업 시작

교육대학(부총장 최태희)이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인 ‘과학문화인간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교육대학은 ‘글로벌 스마트 융합인재양성’을 위한 계산적사고중심의 실용정보 과학교육 강화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과학문화사업의 추진 주체를 확대하고, 과학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과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공동 진행으로 선정하며 사업 운영비는 국비로 지원된다.

교육대학에서는 컴퓨터교육학과와 제주지역 유관기관들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내용에는 언플러그드 정보과학 캠프, 도내

소외계층 정보교육 지원활동, 특별강좌 및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 진행이 포함돼 있다. 침체된 과학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실용정보과학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어서 과학분야 저변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책임자인 박남제(초등컴퓨터교육전공) 교수는 “대중들에게 실용정보과학을 전도하는 정보과학문화전도사 및 세미나를 운영해 제주 지역에서 제주대를 거점으로 실용정보과학문화 공감 확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과학창의재단에 따르면 이번 사업자 공모에는 전국 113개 사업이 신청된 가운데 전문평가단 평가를 거쳐 최종 49개 사업이 선정됐다.

물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내달 28일까지 물산업인재양성센터에서 접수

제주물산업 인재양성센터(센터장 이선주)에서 물산업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취업 촉진 및 물산업의 발전, 일반인의 물산업 관심 증대를 목적으로 개최되며 누구나 공모할 수 있다.

접수는 다음달 28일까지 온라인(eduwater@gmail.com), 우편 또는 방문으로 하면 된다. 공모분야는 물산업 관련 홍보 UCC, 물산업 캐릭터와 로고 및 마크 디자인, 음료, 주류, 수처리(스파) 등 물산업

관련 기술 분야이다.

심사결과는 오는 11월 11일 발표된다. 입상자는 최우수상 1명 300만원, 우수상 2명 100만원, 장려상 3명 5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수상작은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제3회 제주 워터 페스티벌에 전시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 물산업 인재양성센터 754-2478 및 www.water.jejunu.ac.kr로 문의하면 된다.



체육학부, 88올림픽 기념 자전거 횡단

체육학부(학부장 남사웅) 학생과 교수 196명이 88올림픽 23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올림픽 성화봉송의 첫 기착지였던 일주도로를 자전거로 횡단했다. 이들은 지난 8일 10시 제주대 체육관에서 출발해 서귀포 초동학교를 거쳐 이틀날 신산공원을 도착점으로 1박 2일의 여정을 마쳤다.

인문학에서 삶의 지혜와 행복을...

‘2011 인문주간’ 24일까지 행사

인문주간이 ‘삶의 지혜와 행복 찾기’라는 주제로 9월 19일부터 7일간 인문대학 1호관과 제주도 일대에서 열린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후원하고 인문과학연구소와 한국연구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강연·대담·문화체험·답사 등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21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 제주, 전쟁 속에서 찾아보는 삶과 평화’를 주제로 항몽유적지, 일제 동굴진지, 가마오름, 제주 전쟁 역사평화박물관 등을 답사한다.

오는 22일에는 오후 1시부터 5시간 동안 ‘포화 속에 인문학-전쟁에서 찾아보는 행복한 삶’을 주제로 인문대학 1호관 세미나실에서 박준진(부산대), 이임하(성균관대), 박태일(경남대) 교수의 강연이 열린다.

23일에는 오후 1시부터 4시간동안 ‘한류와 한국문화 바로알기’를 주제로 인문대학 1호관 세미나실에서 대담이 펼쳐진다. 4명의 중국교수와 유학생들에게서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고 하심단화한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문예회관에서는 중어중문학과 학생들이 ‘중국문화의 소용’을 주제로 문화 공연을 펼친다. 중국문화에 쉽게 다가서기 위해 중국인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 동물인 팬더와 중국무술 쿵푸를 소재로 한 영화 ‘쿵푸 팬더’의 중국어 더빙을 학생들이 직접 시연한다. 또 한국영화 ‘시라노 : 연애조작단’을 학생들이 중국어 연극으로 각색해 연기한다.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문화체험으로 ‘올레, 그 곳에 길이 있다’가 진행된다. 올레 11코스, 첫알오름, 올레 14코스 저지 곳자왈 문도지오름을 탐방한다.

뉴스 클리핑

고병조·김희범씨 공인회계사 합격

고병조(회계 4), 김희범(회계 4)씨가 2011년도 제4회 공인회계사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경성대학 고시반 소속인 두 학생의 최종 합격으로 제주대 출신 공인회계사는 37명에 이른다.

지난 6월 27~28일 치러진 공인회계사 시험은 지난해 합격자와 올해 1차 합격자 등을 포함해 모두 2798명이 응시했고, 그 중 961명이 합격했다. 이번 시험의 합격



김희범(회계4)씨, 고병조(회계4)씨.

률은 34.3%로 지난해 34.8%보다 조금 하락했다.

외국어교육원 제4회 에세이 경시대회 개최

제4회 에세이 경시대회가 오는 30일 외국어교육원 강의를실에서 열린다.

외국어교육원(원장 이기석)에서 주최한 이번 대회는 학생들의 외국어에 대한 관심 및 글쓰기 능력향상을 위해 열리는 것으로 제주대 학부 재학생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단, 외국인 유학생인 경우 모국어 아닌 언어에 지원 가능하다. 실시언어는 영어, 일어, 중국, 독어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이며

외국어교육원 행정실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문제 유형은 학교 홈페이지 및 외국어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시험 주제는 당일 제시되며 이날 경연 참가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입상자는 10월 7일 외국어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각 언어별 최우수상 1명에게는 30만원, 각 언어별 우수상 2명에게는 2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외국어교육원(754-2291~2)로 문의하면 된다.

예술학부 조소실습관 지난 7일 준공



지난 7일 조소실습관 현관에서 예술학부의 열악한 실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조소실습관 준공식이 열렸다.

예술학부의 열악한 실습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학업 증진을 위해 조소실습관이 지난 7일 준공됐다. 급년 2월에 착공한 조소실습관은 지상 1층 연면적

502㎡ 규모로 기초조형실, 복합매체실, 철조실, 강사·모델실, 대학원실, 모형제작실, 소조실 등이 마련됐고, 5억원의 총 사업비가 투입됐다.

교육과정·협동프로젝트로 물산업 인재 키운다

특성과 사업단 연장 <2> 물산업인재양성센터

알프스 빙하가 녹아 흘러든 지하수로 만든 먹는 샘물 ‘에비앙’. ‘에비앙’은 질 좋은 성분에 알프스의 청정한 이미지를 더해 전 세계 시장에서 프리미엄급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프랑스 에비앙시는 생수산업뿐만 아니라 스키, 관광 등 물산업과 연계한 산업 분야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켰다.

제주에도 ‘에비앙’과 세계시장에서 견줄 만한 깨끗한 물이 있다. 제주물산업인재양성센터(센터장 이선주 학과 교수, 이하 물센터)는 이런 깨끗한 제주의 물을 활용한 다양한 물산업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동시에 갖춘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위해 동분서주 일하고 있다. 제주형 물산업은 지하수를 활용한 먹는 샘물, 음료·주류 등의 2차 상품, 수치료(스파)와 같이 지하수와 서비스를 결합한 3차 상품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물의 신까지 창출로 제주의 물을 세계의 물로’라는 가치를 달고 활발한 인재양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물센터에 대해 들어왔다.

특화된 전문가과정으로 물산업 이끌 인재 키워

물센터는 지난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에 제주대학교가 선정됨에 따라, 3년간 총 111억원을 지원받아 물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총 13개 학과가 참여하는 5개의 전문가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수자원 융합관리전문가양성’ 과정에는 지구해양과학

과, 토목공학과, 해양시스템공학과, 컴퓨터교육과가 참여하며, 물의 성분분석과 품질관리를 하는 ‘물 QC 및 기능성평가 전문가양성’ 과정과 ‘주류 및 음료개발 전문가양성’ 과정에는 생명화학공학과, 화학과, 환경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해양생명과학전공, 수산생명과학전공이, ‘브랜드마케팅 전문가양성’ 과정에는 경제학과와 언론홍보학과, 산업응용경제학과가 참여한다. 이와 더불어 국내에 전문양성기관이 전무한 ‘메디컬 스파테라피 전문가양성’ 과정은 13개 참여학과 학생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방하고 있다.

물센터에서는 메디컬 스파테라피 전문가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집중교육을 통해 참여학생 7명이 국제인증 ITEC spa therapy treatment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복경과 독일 등 메디컬 스파테라피 산업이 발달한 국가에 연수도 다녀와 전문분야 수준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 국내에 마땅한 전문가가 없는 수치료분야의 전문인재양성을 위해 센터 차원에서 ITEC 국제자격증 인증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센터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취업축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비롯해 수준별 영어집중 강의, 해외 현장실습, 노내외 현장교육, 학술대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에듀윌터 협동 프로젝트’로 창의적 인재



지난 5월 4일 제2회 제주위터페스티벌이 열린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에듀 프로젝트의 ‘H.O.W(Hope Of Water)’ 팀이 개발한 올레차를 사람들이 시용하고 있다.

배출

물센터의 산학협력 프로그램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에듀윌터 협동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팀 구성부터 제품 개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직접 이끌어가는 프로그램이다. 산·연·관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를 주제를 선정하면, 에듀윌터 참가 학생들이 센터 전임교수와 산업체·연구소 전문가와 함께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물센터는 에듀윌터 협동프로젝트에서 팀 구성 시 최소 2개 이상 전공의 학생들이 한 팀을 이루도록 해 학문간 융합과 협동을 끌어내고 있다. 벌써 에듀윌터를 통해 학생들 손으로 직접 만든 기능성 주류, 기능성 음료와 모형, UCC, 수자원관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결과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물산업 관련 제주맥주 홍보용으로 개발된 ‘주랑이’ 캐릭터 디자인 5종이 의장등록됐으며, 방사선피폭동물 보호효과에 탁월한 ‘후코이단’과 유채꽃을 이용한 ‘올레차’를 개발해 (사)한국산학기술학회와 (사)한국융합학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여러 차례 수상하기도 해 뉴스와 신문에 보도되는 등 주목을 받기도 했다. 올레차는 학생들이 후코이단을 생산하는 (주)아쿠아그린텍의 자문을 구하며 만들어낸 쾌거이기에 더욱 뜻깊은 결과물이다.

물산업에 특화된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으로 꿈만 같았던 일들을 학생들 손으로 직접 해내고 있는 것이다. 제주물산업인재양성센터를 인큐베이터로 삼아 제주의 물산업을 이끌어갈 꿈을 키워나가는 이들의 미래가 기대된다.

고홍희 기자



제주대학교(총장 허향진)는 JDC·제주의소리와 함께 학생들에게 국제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미래지향적 마인드를 키워주기 위해 대학생 아카데미를 마련했습니다. 국내의 명강사들을 초청해 매주 화요일 오후 국제교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대학생 아카데미는 오는 12월 6일까지 총 13개 강좌가 열립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밝은 표정으로 인사” 인생 성공의 시크릿

비전 설계와 긍정의 법칙

김경호 이미지메이킹센터 소장



김경호 이미지메이킹센터 소장

타고난 생김새는 어쩔 수 없지만 얼굴 표정 만들기(Image Making)는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우선 생각이 있고 밝은 얼굴표정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표정은 그 사람의 마음의 산물이다. 마음에 따라 표정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밝은 표정을 만드는 얼굴의 핵심 포인트는 눈과 입 주변이다. 가장 멋진 웃음을 머금고 손으로 입을 가린 다음에 눈이 자연스럽게 웃고 있는가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 가장 먼저 관찰하는 곳이 눈이다. 그 다음으로 웃을 때, 구각이 위로 올라가는지 아래로 처지고 있는가를 관찰한다. 어린 아이들은 웃을 때 대부분 구각이 위로 올라가지만, 나이가 들수록 구각이 아래로 처진다. 눈과 입이 정답게 웃는 웃음이 보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준다. 생기 넘치고 따뜻한 웃음은 스스로 안면근육의 운동을 통해서 가능하다.

밝은 표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을 열등감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이 우선이다. 최근 한 조사에서 학생들의 열등감 요소로 꼽은 게 신체와 외모였다. 하지만 타고난 생김새는 조상의 책임인 만큼 외모 때문에 열등감에 시달릴 필요는 없다. 열등감은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이 있다. 절대적인 열등감은 이미 결정돼서 타고난 것들이고, 상대적인 열등감은 주로 비교하는 데서 온다. 열등감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객관성이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겐 전혀 관심과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신의 열등감을 내려놓으면 그만이다. 열등감의 진정한 이유는 전혀 다른데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열등감을 핑계 삼아 자기 개발을 게을리 한다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미소는 모나리자가 아니라 700년 전 완성한 우리나라 하회탈의 미소이다. 모나리자의 미소는 눈이 웃고 있지 않다. 선조들의 위대한 유산인 하회탈이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려면 얼굴 근육을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태도 역시 중요하다. 내면의 정제성이 드러나

는 곳이 얼굴이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마음은 비호감의 표정으로, 긍정적인 마음은 호감가는 표정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치이다.

말 한마디의 씨앗을 정성껏 심어야 한다. 모든 씨앗은 심은 지 수 개월이 지나야 열매를 맺지만 좋은 말의 씨앗은 심는 즉시 열매가 맺히는 법이다. 말하는 사람에겐 별로 차이가 없는 표현이 듣는 사람에겐 엄청난 차이로 다가오기 쉽다. 말하는 사람이 크게 손해 볼 일이 아니라면 듣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말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말 한마디가 천 냥 빚을 갚을 정도면 그 위력은 실로 대단한 것이다. 부드럽고 친근한 말 한마디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값싼 투자이지만 가장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사회생활에서 가장 큰 죄는 ‘패썸죄’이다. 이는 말 한마디로 저지를 수 있는 죄이다. 누군가의 지시에 부정적으로 맞받아 친단면 아무리 맞는 이야기라도 ‘패썸죄’에 걸린다. 반면 ‘네, 알겠습니다’로 시작해 이후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첫 마디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서 무장해제 시키면 그것으로 내가 이긴 것이다.

화안어어(和顔愛語)라는 말이 있다. 얼굴을 화평하게 가지고 말을 부드럽게 함을 뜻한다. 환하게 웃는 얼굴을 하고 밝은 목소리로 말을 부드럽게 하면 모두를 밝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입사시험에서의 면접을 성공으로 이끄는 원동력과 같다.

“물산업 이끌어갈 맞춤형 인재 육성 힘쓸 터”

센터장 인터뷰

-제주에서의 물산업 전망은?

“삼다수가 제주의 청정이미지를 활용해 물산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제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산업분야로써 물산업은 주목할만한 분야다. 제주도의 산업구조는 1·3차 산업에 치중돼 있어 음료·제조업을 포함한 2차 산업이 매우 열악하다. 2차산업인 맥주산업 등을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육성한다면 삼다수 못지않은 기업이 만들어지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이와 함께 3

차산업인 서비스분야와 물산업을 연계시킨 수치료(스파)산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수치료산업은 큰 투자 없이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고용창출효과도 큰 분야이다. 물센터에서는 먹는 샘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물산업 인재양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사안은?

“물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생들의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교수들이 적극적인 접근 태도로 학생들의 멘토로서 역할해준다면 제주의 물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재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센터에서도 물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더욱 체계화하는데 노력하겠다.”

-참여학생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센터에서 학생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열정이 부족하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



이선주 (화학과) 교수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센터에서 물산업 분야로 해외연수 및 해외현장실습을 보내주는 등 전문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여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

고홍희 기자

Challenge Passion Creativity

대학생 아카데미

기간 ▶ 2011년 8월 30일 ~ 12월 6일(개강 8월 30일)

주최 · 주관

강의일정

8월 30일 국제교류회관 원희룡 청년의 꿈이 만들어가는 신한 영향력의 중심국가	9월 6일 국제교류회관 김경호 이미지메이킹센터 소장 비전설계와 긍정의 법칙	9월 20일 국제교류회관 박한기 (주)제이브랜딩 사장 21세기 브랜드전략과 스토리텔링	9월 27일 국제교류회관 홍웅식 한국적무늬문화개발원 원장 비전성공학 - 꿈의 역량을 확장하라	10월 4일 아라무조출 이지성 “꿈은 다락방” 작가 리딩으로 리더하라	10월 11일 국제교류회관 오경수 통계청장인 대표이사 기업가 바라는 인재상
10월 25일 아라무조출 오은선 산악인 오은선의 도전과 열정	11월 1일 경향대 세미나실 이종범 프로그래밍 교수 비현실적임을 이용한 그의 끝까지 없는 도전	11월 8일 국제교류회관 성연미 볼로커/비즈니스 대표 아나운서/스피치에서 배우는 Win Win Speech	11월 15일 국제교류회관 이지사민 활판술사회의 사무총장 다문화가 만들어 가는 미래 한국의 힘	11월 22일 국제교류회관 김경한 창조경영/비즈니스 대표 스타트업/스타트업 창립자	11월 29일 국제교류회관 송동현 strategy sales 이사 소셜미디어/비즈니스를 통한 꿈과 도전
			12월 6일 국제교류회관 서진구 서진구/비즈니스연구소 소장 나는 희망의 승자가 되고 싶다		

홈페이지
www.jejusori.net

페이스북
facebook.com/JDCAcademy

블로그
blog.naver.com/JDCAcademy

문의
제주대학교 취업전략본부 T.064) 754-2307

2011 캠퍼스 리포트 / 장애를 보는 왜곡된 시선

함께 누린다고? 팔짱끼 학교식구들, 눈높이부터 맞춰주세요

장애가 있어도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다. 그렇기에 장애는 개인의 결함이나 결함이 아니다.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이나 제도가 부족해서 생긴 사회의 결함이다. 제주대는 특별전형으로 장애학생들을 선발하고, 그들이 대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복지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이 온전히 '사회적 결함'이 없는 공간이 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제주대신문은 장애학생들을 만나 그들이 평소 애용하는 대학생활의 어려움을 들어봤다. 대학에서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물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보자. <편집자주>

“학생들의 시 ‘선’ 보다 힘들게 하는 건 학교의 시 ‘실’입니다”

김지은(22 가명)씨는 오늘 아침도 그녀의 분신과 같은 휠체어를 타고 위험한 여정을 감행한다. 오른손으론 스틱을 조종하고 왼손은 전공도서를 끼고서. 그녀는 태어난 때부터 몸이 아팠던 뇌병변장애 1급 장애인이다. 휠체어를 타는 모습에 가끔씩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항상 그녀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녀는 당당하다.

지은씨에게 그녀를 도와주는도우미 학생이 있다. 하지만 항상 도우미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1급 장애인이라지만 지은씨는 웬만한 일을 대부분 혼자서 한다.

지은씨는 오늘도 분주히 강의실로 향한다. 하지만 그녀의 휠체어 바퀴는 인도가 아닌 아스팔트 바닥 위를 굴러간다. 그녀도 인도로 가고 싶지만 턱이 그녀를 가로막는다. 턱이 높아 내려올 땐 충격이 고스란히 그녀의 목까지 전해지기 때문이다. 도로로 다니다보니 차가 쾅하니 옆을 지나간다. 뒤에 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좌회전하려 했다가 차와 부딪칠뻔한 아찔한 상황도 있었다. 또 아라뮤즈홀로 들어가는 경사로를 오르다 넘어질 뻔했다. 경사로가 반듯하지 않아 휠체어 균형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힘든 여정을 마치고 강의실에 도착한 지은씨의 이마에는 땀 한 방울이 맺혀 있다.

하지만 강의실에도 그녀의 땀은 물론이고 학구열까지 차갑게 해버리는 존재가 있다. 바로 자리다. 강의 중간 중간 내용이 잘 들리지 않아 답답하다. 그래서 교수의 한마디 한 글자 놓치지 않기 위해 앞자리로 가 앉고 싶지만 책상과 의자가 나사로 바닥에 고정돼 있는 책상이 있으면 그녀는 강의실을 원망하며 뒷자리로 가 전공도서를 펼치고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힘든 수업이 끝나고 밥을 먹는 것도 힘이 든다. 백두관 식당은 그녀가 꺼려하는 식당중 하나다. 배식을 받고 뒤돌아서면 ‘장애우 지정석’이라는 팻말이 지은씨를 노려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벗 우(友)자는 상대방을 연령에 상관없이 낮춰

부르는 의미도 들어 있다”며 “장애우라는 단어를 보면 씁쓸하다”고 말한다.

중앙도서관 자리에 앉는 것도 힘들다. 유리문을 보면 그녀는 한숨이 절로 난다. 가끔 문이 닫혀 있을 때면 그녀는 불도저가 돼야 한다. 손은 스틱을 잡아야하기에 쓸 수 없고 그녀의 발로 있는 힘껏 밀어야하기 때문이다. 또 그렇게 도서관 입성을 하고나서도 그녀는 책 한권 고르기도 힘이 든다. 그녀도 남들처럼 아무 이유 없이 서가에 재밌는 책을 골라보고 싶지만 휠체어가 들어가기에 너무 좁다.

“장애학우에게 학내 시설 이용은 여전히 불편”

“장애는 불편할 뿐, 희망 꺾을 수는 없죠”

“서로 도움을 주며 살아간다면 그래도 살만한 세상”

대학생활이 힘들 때도 있지만 언제나 장애인 인권대책위원회 식구들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준다. 값비싼 음식을 먹는 보다 더 맛있는 라면을 먹기 위해 가는 곳이, 공부하려고 중앙도서관으로 향했다가도 고개를 저으며 가는 곳이 이 곳이다. 이렇게 그녀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 고마운 사람들을 보며 지은씨는 힘을 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다. 지은씨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장애인 자립센터를 직접 세우겠다는 꿈이 있다. 그녀는 장애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당당함을 불어 넣어주고 싶다고 한다.

“지적장애학생을 위한 학습지원 필요해요.”

김성준(23 가명)씨는 수업 준비로 하루를 시작한다. 수업 관련 PPT 자료들을 프린트해 미리 예습해 놓고, 수업에 들어가서는 준비한 PPT 자료에 이리저리 밑줄을 그어가며 누구보다 열심히 경청한다. PPT 없이 말로만 하는 교수들의 수업은 따라가기 조금 힘들다. 그래도 어쨌든가, 수업이 끝

나면 그는 곧바로 복습에 들어간다. 본인 스스로는 완벽히 학습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니 도우미나 주변 선배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는 지적장애 C급 판정을 받은 장애 학생이다. 때문에 그렇게 일반 학생들보다 몇 배로 탐 들어가 공부하지만 정작 결과는 그리 좋지 않다. 포박포박 출석하고 과제도 제때 제출했지만, 수업 내용을 따라가지 못해 그가 전공과목에서 받은 성적은 F였다. 졸업을 하기 위한 요건을 채우는 것도 어렵다. 일정점수 이상을 받아야 하는 과목이 있지만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C 이상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비장애학생보다 학습이 어려운 지적장애 학생을 위해 졸업기준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학점이 제일 낮았을 때는 무려 1점대를 받은 적도 있었다. 그는 “미리 교수님들께 편지를 보내곤 하지만 이를 외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비장애 학생과 장애 학생에게 똑같은 대우를 하고 싶다고 차갑게 일갈한 교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조금 황당한 경우도 있었다. 장애지원센터에서 착각을 했는지 그에게 ‘수업 도우미’가 아닌 ‘생활 도우미’를 배정해 2학년 1학기 때 공부하는 데 큰 곤욕을 겪었다. 심지어 그 도우미와 만난 횟수도 단 2회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은 그래도 성실한 도우미가 배정돼 그때와 같은 불상사는 없지만, 그때는 모든 것이 스스로의 몫이었다. 그는 혼자서 선배들을 찾다니고 혼자 복습해 가며 겨우겨우 공부했다. 특별 전형으로 들어온 학교건만 막상 들어와 보니 학교 측에선 그에 걸맞는 ‘특별’ 대우가 부족했다. 장애 학생을 위해 수업 노트 등은 지원하고 있지만, 기초교육원에서조차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학습법 강좌 등은 마련돼 있지 않다.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은 물론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그는 초등학교 때 친구들로부터 멸시를 받았던 아픈 기억이 있다. 그 때문에 그는 유난히 낮은 가리는 성격이 됐고, 아직까지 낯선 이나 안 친한 사람에게는 말을 잘 못 붙이는 편이다. 그러나 그의 사고는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긍정적이다. 그의 꿈은 자기와 같은 지적 장애인들을 돕는 뜻 깊은 일을 하고 싶다는 것. 그는 “그들이 힘을 얻으려면 우선 나부터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스스로부터 밝고 도전하는 사람이 돼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동아리 생활을 하며 대학 생활을 보낼 것이다. 그런 그에게서, 다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용기’와 ‘희망’이 엿보였다.

“동 ‘정’은 저를 더 힘들게 해요. 장애학생에 애 ‘정’(愛情)을 보여 주세요”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면 너무 좁은 중앙도서관 서고... 마음을 열면 좁은 틈도 열립니다.

이민수(22 가명)씨는 연골이 자라지 않는 연골무형성 장애를 가지고 있다. 뼈가 성장하는 성장판에서 연골이 자라지 않아 남들보다 키가 작다. 오래 걷거나 힘들어 학내에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서는 직접 걸어서 올라간다. 키만 조금 작을 뿐, 그가 비장애인과 다른 점은 없다. 사회복지 관련 일을 꿈꾸며 대학에 입학해 꿈을 키워나가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한 대학생이다. 오히려 그를 ‘비정상’으로 만드는 것은 편견어린 시선들이다. 많은 학생들이 장애학생들을 배려해주지만, 장애학생들에게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다.

이민수씨는 좁은 복도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지나갈 때 불쾌한 눈총을 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한숨을 지었다. 이씨는 “좁은 곳을 지날 때 휠체어를 보고 짜증어린 눈빛을 비치는 이들도 있었다”며 “많은 학생들이 장애학생들에게 마음을 열고 배려해주지만 여전히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이들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몰려들어서 다음번에 타야했던 경험도 있었다. 그는 “학생회관 엘리베이터에 비장애 학생들이 어럿이 타서 기다려야했던 적도 있었다”며 “장애학생들은 엘리베이터가 아니면 이동수단이 없는데, 배려가 부족해 조금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배려 대신 편견이 자리 잡은 시선은 장애 학생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낸다. 이씨는

힘든 유년시절을 보내며 어머니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비가 올 때면 어머니 등에 업혀 우산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며 “힘들 때에도 항상 어머니에게 사랑을 한껏 받았고 지금 대학에 오게 된 것도 모두 어머니가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어머니의 자리가 비어있는 대학에서는 친구들이 따뜻한 감정을 공유하며 그 역할을 대신한다. 몸이 불편한 장애학생들은 마음을 타놓을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쉽지 않다. 많은 학생들이 개강파티 등에서 술을 마시며 친해지는데 몸이 불편한 장애학생들은 그런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씨는 “취한 친구들과 사이에서 부딪힐 수도 있고, 이동도 불편해 술자리에는 많이 못가는 편”이라며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더 친해지고 싶지만 개강파티 같은 자리에 참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장애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가 주는 친구들은 더욱 큰 힘이 된다.

결국 장애라는 벽을 허무는 방법은 서로 간 따뜻한 감정을 공유하는 친구가 되는 것이다.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비정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인과 다른 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마음을 열면 좁은 길에서 마주친 휠체어를 보며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발짝 뒤로 물러나 주는 여유를 배우게 되지 않을까.

김명희·김소영·고용희 기자

인터뷰

“장애인에 불편한 캠퍼스, 지속적으로 바꿔야”



백승관(사학 3)
장애인인권대책위원장

-장애인인권대책위(이하 인권위)에 대해 소개해 달라.

“장애학생 권익보호를 위해 2002년에 처음 만들어진 단체다. ‘장애인’이라는 단체명 때문에 장애학생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사실 장애학생들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다.”

-인권위의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

“장애학생들의 불편 사항이나 의견을 모아 대표로서 학교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비롯해 장애학생들의 권익과 편의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대동제 때 시각장애·휠체어체험 등을 통해 비장애학생들의 의식 변화를 위한 활동을 벌인다. 또 시험기간에 장애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필도우미, 이동보조도우미를 연결해주고 있다. 11월 초에는 대학내 인권과 관련된 주제로 학생회관에서 사전전도 열 계획이다. 사전전에 전시될 작품은 공모전을 통해 중간고사 전까지 bskstar@lycos.co.kr로 접수를 받는다. 많은 참여 부탁한다.”

-인권위 운영에 있어서 한계와 어려움은.

“회원이 부족하고 예산이 빠져해 어려움이 크다. 이와 함께 총학생회 산하기구로서 중앙자치기구 정기총회에서 발표는 하지만 투표시 발언권이 없다. 보다 자치적인 활동을 위해 독립이 필요하다.”

-대학에서 장애·비장애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장애인은 조금 불편할 뿐 비장애인과 다른 점이 없다. 장애학생이 원치 않는 도움은 오히려 차별이 될 수 있다. 장애학생을 비장애학생과 똑같이 받아들이고 그들을 편하게 생각하면 충분히 함께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인권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

고용희 기자

제주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2> 김창삼 책발서점 주인

세월의 먼지 속에서도 ‘보물’을 캐는 책발 농부

“책발서점 주인은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가계문을 늦게 읽니다.”

제주시 광양초등학교 서쪽에 위치한 헌책방 입구 통유리 창문에는 문 여는 시간과 닫는 시간이 적혀 있다. 여느 서점들이 오전 9시부터 저녁까지 하는 것과는 달리 책발서점은 오후 3시가 돼서야 문을 연다. 자연의 시간대로 아침부터 농사를 짓고 난 후에야 문을 열기 때문이다.

헌책방 안에서도 농부의 마음처럼 느긋한 책발서점 주인 김창삼(55)씨. 그는 1992년 책발서점을 인수해 20년째 지키고 있다. 그가 헌책방을 인수했던 20년 전에는 다른 헌책방도 몇 군데 있었는데 이제는 책발서점이 도내 유일의 헌책방이다.

그동안 그는 제주 독서문화의 숲한 변화를 직접 겪었다. 20년 동안 그의 경험과 생각들이 조금씩 담금질되어 이제는 도인(?)이 된 모습이다. 손님들이 들어오면 말단 의자에 앉아 책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차를 마신다. 주인이 있는 듯 없는 듯 해 오히려 손님들은 눈치 안보고 편히 앉아 책을 읽는다. 이때쯤 책을 찾거나 추천해달라는 손님이 있으면 차분한 목소리로 알려준다. 그런 모습의 주인이 펴

인상 깊어 괜히 말이라도 걸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그리고 이내 자신한테 집중하고 제 하던 일을 계속 한다.

“요즘은 ‘난 치는 것’에 관심 갖고 있어. 나중에 한번 배워볼까 하고, 매화, 국화, 대나무는 ‘그린다’고 하고 난은 ‘친다’라고 표현해.”

그는 컴퓨터로 난 치는 동영상을 보며 모니터 속 손의 움직임을 따라 가짜거린다. 해박한 표정으로 물임해 있는 그는 수양 하려 종종 산과 오름으로 간다고 한다.

“특이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누구든 즐거움을 찾는 자기만의 방식이 있으니까. 산과 오름에 다니며 두 달하는 것도 내가 즐거움을 찾는 방식 중의 하나야.”

웬지 그는 ‘처음부터 속세와는 동떨어진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인 아닐까 하는 느낌을 불러 일으키지만 2, 30대 때에는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움직이는 열혈투쟁가였다.

“혹시 ‘사인자’라는 서점 알아? 지금은 없어졌지만 중앙로에 있던 사회과학전문 서점이야. 대학 다닐 때 그 곳에서 토론 많이 했지. 대학 졸업 후엔 직

장 다니면서 노조 위원장도 하고 그랬어.”

부조리한 사회에 대해 비판하고 행동하던 그는 점차 관조적으로 변화해 갔다. 그때의 ‘동지들’ 중 몇몇은 가끔 술자리에서 그에게 ‘배신자’라는 소리를 하곤 한다. “그들 입장에서 그렇게 비취질 수도 있겠지. 그러나 사회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해서 안 돼. 묵묵히 자기 할 일 하면서 차분히 변화시키는 거지. 한 사람이 투쟁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조금씩 차분히 그리고 즐기면서 변화를 줘야 되는 거야.”

독서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만큼 헌책방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점점 뜸해지고 있다. 수입이 계속 줄어 몇 년 전에는 평수가 더 작은 공간으로 책발서점을 옮겼다. 헌책방에서 조금이라도 이윤이 생기면 다했는데로 책을 사들이고 적자가 나면 농사 지은 수익으로 채운다.

운영난을 겪으면서도 그가 책발서점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놓아버리면 사라지기 때문이다. “책 읽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손님들이 통한 날이면 책발서점에서 주인 김창삼씨는 대금을 부른다. 그가 대금으로 ‘이리랑’을 연주하고 있다.

오는 사람들이 있어. 이미 절판된 책을 찾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를 놓지 못하는 거지.”

여러문 헌책방 운영 속에서도 적은 수라도 꾸준히 찾아오는 손님들 때문에 여태껏 이 자리를 지켜온 그는 그것이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 믿는다. 동시에 헌책방 운영을 하며 제주관련 서적

을 꾸준히 수집하고 있는 그는 기회가 되면 책발서점 공간을 넓혀 제주서적만 따로 전시해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싶은 꿈도 밝혔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묵묵히 하고 싶은 일을 꾸준히 하겠다는 헌책방 주인. 그에게서 시골농부 같은 우직함이, 난 같은 고매한 향기가 났다. 현성미 기자



무론유설

윤석선
국어교육과 명예교수

학보사 기자가 전화로 정년퇴임 소감을 물었을 때, 25년 전 면접 보던 때의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총장님은 왜 우리 대학에 지망했느냐고 물으셨고, 나는 어디에서 근무하던 할 나뉠이라면서, 뽑아주신다면 제주도를 소재로 삼아 좋은 시를 쓰고, 벤트빌트 대학의 랜섬(J. C. Ransom) 교수 같은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벤트빌트 대학은 미국 남부 내쉬빌에 있는, 우리 대학보다 조금 큰 대학입니다. 그리고 랜섬 교수는 제자들과 ‘도망자’라는 동인회를 만들고, 신비평 이론을 창안하여 1980년대 중반까지 대학 강단을 지배해온 사람입니다.

이런 풍경을 떠올리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하던 말던 그 동안 나는 면접 때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주도를 소재로 삼아 네 권의 시집을 냈고, 연구실을 드나드는 제자들을 모아 ‘다충’이라는 동인회를 만들었고, 그들을 지도

하기 위해 다섯 권의 이론서를 펴내면서 3, 40명을 문단에 배출했고, 전국적인 발표 무대를 마련해주기 위해 계간 문예지 ‘다충’을 창간했으니 말입니다. 지금 내가 허덕거리는 한국디지털총합도서관(www.kll.co.kr)도 이들을 위해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약속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내 꿈은 다 이뤄지지 않았고, 그렇게 열망했던 것들을 가로막은 장애물들을 밝혀 함께 제거하려고 노력한다면, 남은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각기 다른 꿈이 모두 이뤄질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우선 외부에 대해 마음을 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부임해서 원로 교수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연구실로 찾아가더니, 자리에 앉아 ‘윤교수는 언제 갈 거요?’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분에 대한 오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서 손질을 해도 여기서 정년을 마쳤지만, 상당수의 교수들은 그렇게 떠났고, 꼭 모셔와야 할 분들도 망설이게 만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통섭과 융합’의 시대입니다. 마

음을 담으면 개인은 물론 대학도 제주도를 둘러싸고 있는 해안선 안에 갇히고 맙니다. 너와 나를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객관적인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가리고, 타자의 장점을 받아들이지 못해 거꾸로 외부의 식민지가 됩니다.

물론 무조건 외부의 물결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랬다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할 테니까요. 그러나 사회는 생태사회학적 법칙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그리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떠돌이 늑대가 정착하려면 토박이 늑대보다 세 배 이상 더 강해야 하고, 그레도 번식물은 사본의 일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법칙 말입니다.

둘째로, ‘변방 의식’을 버리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관점을 바꾸면 바다는 단절의 공간이 아니라 세계로 연결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예전에는 서울로 올라가지 않으면 정보를 얻을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이용해 전 세계의 DB를 뒤질 수 있고, 시간만 뺏는 자리는 바다를 핑계 대며 피할 수 있고, 꼭 참석해야 할 자리는 서울의 강남에서 강북을 가는 시범 택시비 정도면 참석할 수 있

는 곳입니다.

아니, 10분만 차를 몰면 하이얀 넝쿨꽃들이 그네를 타는 원시림이 나타나고, 서부 영화도 찍을 만한 초원과 멀리 남태평양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육지 사람들 내가 퇴임을 하고도 여기서 못 다한 공부를 계속 하려는 것은 제주보다 더 좋은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서로 돕고 아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닫힌 사회는 겉으로 보면 상부상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닭장 속처럼 ‘찍기 순서(pick order)’의 경쟁이 치열하기 마련입니다. 그 순위에 따라 생존의 조건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구촌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인구는 한국 전체의 백분에도 못 미칩니다. 그러므로 닭장 안의 순위만 염두에 두었다가는 보이지 않는 경쟁자에 먹히고 말기 때문에 같은 운명에 처한 사람들끼리 협조해서 공동순위를 높이려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꿈 속에서도 여러분의 꿈이 이뤄질길 간곡히 빌겠습니다. 안녕 !

2011년도 교직평가를 회고하며



독자기고

김문규
학사과 학적팀장

사범대학, 교육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 교원양성기관이 설치된 전국 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는다. 평가를 통한 등급에 따라 정원 감축 등 행정 제재를 받는다. 교직원 경우 D등급은 교직정원의 50%를 감축하며, C등급은 20%를 감축해야 한다.

이번 평가는 경영 및 여건(450점), 교육 프로그램(300점), 교육성과(250점) 등 총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0점 이상일 경우 B등급을 받을 수 있으며, B등급 이상인 대학만 교원양성기관의 위치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은 2010년도 3주기(2010~2014년) 교직과정 평가결과 모든 영역에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D등급을 받았다. 모든 대학이 교직분야는 C등급이나 D등급을 받아서 2011년도 재평가 대상이 됐다.

교직과정 행명의 학생이라도 구제한다는 마음으로 학사과는 재평가를 대비하여 평가지표별로 하나씩 준비해 나갔다. 3000만 원을 들여 인문대학 구관에 수업행동분석실을 시설하여 교과교육과목은 학기 중 반드시 1회 이상 수업행동분석실에서 강의하도록 했다. 또한 방학기간 중에는 교직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능력 및 소양교

육을 실시해 예비교사로서의 수업수행능력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대학 교수와 초·중등 교사와의 강의시연을 위한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했다. 지난 3월에는 교원양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교직부를 신설하는 등 행정개편을 통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로, 2011년도 교직 재평가에서 우리대학은 C등급 평가를 받았다. 평가지표별로 보면 국제화, 장학금 비율 및 특성화 프로그램 등 학생과 연계된 지표는 거의 만점을 받았다. 하지만 전임교원 담당 강의시수 비율,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및 전임교원의 학교현장 이해 프로그램 등 교원과 연계된 지표들은 하위 점수를 받았다. 앞으로 교원들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재평가를 준비하면서 적극적으로 자료제출에 앞장서는 등 많은 도움을 준 단과대학이 있는 반면, 법정대학, 생명대학 및 경상대학은 자료제출이 전무했다. 향후에는 자료제출 등 학과별 페널티를 적용하여 교직원들의 가감 조정하고자 한다.

앞으로 2년 후인 2013년도에도 교원양성기관별 평가를 받는다. 남은 기간 동안 교직 부분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통해 B등급으로 올라서고자 한다. 평가 마지막 날까지 자료 요청에 도와주신 교직 관련학과 조교 선생님, 현장방문 평가 날에 손수 자료를 챙겨주신 고인(故人)이 된 진창기 선생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린다.

깨달음 얻은 여대생 리더십 캠프



독자기고

최가람
교육학전공 3

이번 설문대여성센터에서 이뤄진 여성리더십캠프는 나의 여름방학에 커다란 획을 그은 하나의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두근두근 첫째 날, 날레는 마음을 붙잡고 강의실에 입장하려는데 곧 내 얼굴에는 당혹감이 밀려왔다. ‘아차, 잘못 찾아왔구나’ 전혀 엉뚱한 강의실의 문을 당당하게 열어버렸던 것이다. 서둘러 올바른 강의실로 찾아왔지만 나의 시작은 이처럼 순탄치 못하다고 생각해 앞으로의 이틀이 조금 걱정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나의 일시적인 불안감은 곧 사라졌다. 여러 대표님, 교수님, 그리고 제주대학교 학생들 모두 마치 오랜 친구처럼 웃음으로 맞아주어 시작의 긴장을 이완시켜주었기 때문이다.

이틀간의 프로그램에서 운수환 강사님의 강의 등 여러 강의에서는 내가 여태껏 가지고 있던 사고와 발상의 전환을 꺾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파트너와 번갈아가며 하는 활동, 팀별로 함께 하는 활동이 많이 있었는데 상대의 의견과 가치관을 접할 수 있던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었다.

또 앞으로 내가 이루어야 할 나의 꿈을 적어보면서, 이 꿈들이 사소하지는 않나 혹은 너무나 없이 황당한 것들은 아닌지 다시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꿈을 적어보

고 실천하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보면서 꿈을 터무니 없게 만드는 것은 나의 나태함은 아닌지 돌아켜봤다.

리더십 캠프의 모든 활동들이 기억에 남지만 가장 잊지 못할 기억은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여교수와 함께 하는 멘토링’이었다. 여기서 교수님들은 우리의 고민과 걱정을 같이 공감하고 아파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꿈에 대한 열정을 격려하고 북돋아주셨다.

여러운 시대 속에서 나의 앞날이 보이지 않아 우울한 청춘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어 마치 한 배를 탄 것 같은 결속력마저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 의견을 나누고 진심을 담아 들어주고 조언했다.

여성 리더십이란 무엇일까, 단순히 여성 리더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지위보다도 내면에 간직한 불타오르는 열정이 주가 되어 그들을 여성리더로 이끈 것이 아닌가 싶다.

성공한 여성들은 무엇보다도 열정이 있고, 끈기가 있으며, 사회적 소통능력도 가지고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단 이틀 만에 깨닫게 되었다. 이번 깨달음을 통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훌륭한 여성상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다시금 고민해볼 수 있게 되었다. 덕분에 나의 만족도는 100%. 아니 300%라고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동문칼럼

선택이 인생 향로를 바꿉니다

몇일전, 도서관에서 우연히 꺼내든 책 속에서 ‘인생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란 글귀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 글귀에 동참하시나요?

이 글귀를 본 후 저는 마치 일시 정지된 화면처럼 몇초간 멈춰 서있었습니다. 마음에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과거에 했던 고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더니 머릿속이 갑자기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후 ‘그때, 맞아 맞아’ 하며 고개를 연신 흔들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글귀를 찍는 등 당시 제가 취할 수 있는 동감의 표현들을 죄다 내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대학시절 참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진로, 꿈, 취업, 사랑, 여학연수 등등. 4년 내내 고민은 끊이지 않았었고 사회에 나온 지금도 고민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대학 4학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이유가 뭐가?’

졸업 1년을 앞두고 이 물음에 대해 머리에 쥐나게 생각했던 기억이 새록 새록합니다. 당시 저에게 이 물음은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자퇴라는 문제가 포함됐기 때문이죠. 다소 극단적인 생각이었지만, 그만큼 제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 제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이상은 그냥저냥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이에 우선 제가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은 하기 위해서는 기초치식을 쌓아야 한다고 판단, 철학, 사회학 등 관련된 과목을 신청해 수강했습니다. 남들 취업준비로 토의 공부할 때 저는 4학년 마지막 학기까지 24학점을 꽉꽉 채워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어찌 보면 미친 것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 때의 선택으로 일단 ‘신문기자’의 꿈을 이뤘습니다. 물론 기자생활을 하면서도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을 여전히 느끼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인 만큼 즐기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



박소정 (인문홍보학과 04학번)
서귀포신문사 기자

다.

요즘도 또 다른 많은 선택의 문제들이 저를 엄습해옵니다. 선택이라는 게 두려운, 쉽지 않은 존재죠. 그만큼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좋은 선택인지, 혹은 나쁜 선택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타인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설 때 마다 파울로 코엘료의 ‘브리다’란 책을 읽습니다. 선택에 대한 나름의 방식을 담아놓아서 자주 읽고 마음을 다지고 합니다. 선택의 기로를 삶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제게 힘이 되고 있는 이 글귀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

“인생은 너무 복잡해”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어떤 길들은 계속 따라가고, 다른 길들은 포기해야 했다. 위기가 말했던,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떠올렸다. 하지만 최악은 그것이 아니었다. 제일 나쁜 것은 자신이 그 길을 제대로 선택했는지 평생 의심하며 그 길을 가는 것이었다. 선택에는 늘 두려움이 따르게 마련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삶의 법칙이었다. 이것이 어두운 밤이었고 아무도 거기서 도망칠 수는 없었다. 평생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한 사람이라 해도, 아무것도 변화시킬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 해도, 그 초조하고 그 자신이 내린 결정이고 변화이기 때문이었다. 어두운 밤에 숨겨진 보물들은 발견하지 못하겠지만, 로렌스의 말이 옳을지도 모른다. 어찌 됐든 나중에는 왜 그렇게 두려워했는지 웃으면서 이야기 하게 될 것이다.”

예쁜 손글씨 쓰기, 다양한 연령층에 호응

평생교육원 - POP 아트 강좌

쑥, 쑥, 쑥, 쑥. 강의실 안이 이리저리 마가 그어지는 소리로 요란하다. 수강생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푹 숙이고 손글씨 쓰기에 열중이었다. 한자 한자 심혈을 기울여 써내려가는 글자들, 어느덧 수강생들은 어느 전문가 못지않은 예쁘고 독특한 글씨체를 탄생시키고 있었다.

지난 1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평생교육원에서 열리는 POP 아트 강좌, 오서영(한국POP디자인협회 제주지부) 씨의 가르침을 통해 수강생들은 15주 동안 예쁜 손글씨를 배워 나간다.

POP란 Point of Purchase의 약칭으로 ‘구매 시점’이란 뜻이다. 매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즉석에서 호소하는 광고—매장 안에 걸어 놓은 포스터, 디스플레이, 상품 설명 안내판, 쇼 카드, 가격표 등을 말한다. 그중 P.O.P 아트는 매장 앞이나 안에서 흔히 보이는 예쁜 손글씨를 지칭하는 것으로, 광고 부가 효과가 뛰어나 대다수의 매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최근 TV프로 ‘남자의 자격’에 개그맨 김국진이 도전해 화제를 끌기도 했다.

강좌는 첫주에 POP에 대한 이해와 함께 사각촉 매직을 쓰는 방법을 배운다. 2주차에는 자음, 모음, 받침쓰기를 배우며, 3주차에는 된소리, 숫자쓰기, 4주차에는 문장을 쓰는 연습을 한다. 5주차부터는 평보트로 글씨 쓰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며, 점차 데코레이션이나 일러스트와 같은 부분도 배워나간다.

담당 강사 오서영씨는 “P.O.P 아트는 71세 할머니도 중학교 2학년 학생도 자격증을 뒀을 정도로 노력만 하면 취미뿐 아니라 부업, 직업으로도 활용 가능한 분야”라며 “처



POP 아트강좌의 한 수강생이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음에는 쉽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점점 어려워지기에 수강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그 바람을 읽기라도 한 듯 힘든 기색 없이 연습에 매진 중이었다. 강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주시하다가 조금씩 이면지를 손글씨로 채워 나가고, 강사의 강의실 안을 돌아다니며 그런 수강생들을 지도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정섭(44, 노형동)씨는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마침 아내가 옷가게 개업을 준비하기에 신청하게 됐다”며 “이 강좌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해서 아내의 옷가게 준비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정혜정(38, 언동)씨는 “자필 글씨를 교정해 보고 싶어 신청했다”며 “점차 글씨체가 예쁘게 바뀌어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 뿌듯하고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중에 붓으로 글씨 쓰는 단계가 정말 재밌다고 하던데 그때가 무척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독자기고

박홍배
철학과 석사과정

제주도민 여러분, 나아가 대한민국국민 여러분, 평화의 섬나라에 난리가 났다. 정제도 모르는 단체에 제주도를 세계7대자연경관으로 선정해 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다. N7W재단의 정체성, 유네스코와의 관계, 투표방법 등 문제제기가 확산되자 지난 4월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이벤트를 주관하는 N7W의 설립자 버나드 웨버는 N7W재단 홍보 겸 공신력을 해명한 바 있다. 연합뉴스와 뉴시스가 보도한 기사를 보면 버나드 웨버는 “N7W는 유네스코와 아무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는 일과 방식도 다르다”며 전 세계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이라 밝혔다. 경제적 효과에 대해 “지난번 세계7대불가사의의 선정을 통해 21개국에서 발생한 경제효과는 51억 달러로 조사됐는데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역시 이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했다.

한국관광공사 이삼 사장은 “일종의 미스 월드와 같은 인기투표라며 인기투표를 진행하는 조직에 공신력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하늘이 준 천혜의 섬, 지키지 못할 평화의 섬

넌센스”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반참석한 정운찬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위원장은 “최근 N7W 정체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이 있는데 의심이 들더라도 캠페인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며 “제주가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되면 대한민국 이미지가 높아질 것”이라고 거듭었다.

인중이란 무엇인가. 법률적으로 인중이란 어떠한 문서나 행위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적권이 증명함을 뜻한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인증을 부탁하고 있다. 국제기구인가, 아니다. 유네스코라고 하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염연히 존재한다. 한낱 이벤트에 매달려 “기구의 정체성보다 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정운찬은 얌에 말한 어이없는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

투표방법도 그렇다. “해외 경쟁지역에 비해 인구가 적은 제주도는 내외도민 120만 명이 1인당 100표씩 투표하면 제주가 안정적으로 선정될 수 있다”면서 범국민추진위원회가 경품투표와 기부활동을 전개하고 읍·면·동 추진위원회가 반사회를 통하여 독

려하고 있다. 투표할 기회가 적었던 국민에게 단번에 100개를 투표할 기회가 주어지니 그도 영광이라든 영광이다. 무려 26자나 되는 긴 명함을 들고 다니는 정운찬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장은 1000번을 투표했다니 단연 기네스북 등재자이다. 이런 것은 경제학 박사로서는 어리석은 것이다. 더구나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를 얻었다면 그건 헛된 것이다. 로봇 하나를 들여놓았다더라면 잠 안자고 그 짓을 할 것이니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될 일이다. 자라고 대한민국은 이상한 투표에 이어 세상에 들도 보도 못한 방법으로 투표가 진행 중이다.

한편 제주를 제주를 세계7대자연경관으로 선정해 달랄 명분이 있는가. 속국 까발리듯 올레길이 스무나론 개나 넘는다. 100만 평에 달하는 자연숲을 도려내 영어마을을 만들고 골프장 28개는 좋은 곳만 골라 자리잡았다. 골프장 잔디는 스스로 자라는 게 아니다. 가꾸려면 농약을 살포해야 하며 구경물은 청정바다로 흘러간다. 좁은 땅에 2300만 평이나 되는 도로가 거미줄 놀이듯이 사방팔방으로 뚫고 넓혀 관광객을 실은 버스

는 경찰단속차보다 빠르게 달리는 고속버스다. 게다가 한라산과 비양도에 케이블을 설치한다고도 했다. 못 사는 것도 아닌데 해군 기지를 끌어들이려 제주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지키자며 구뎀비바위를 쪼고 있다.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지키기도 전에 이미 전쟁이 터졌다.

한겨레 <아침햇살> 한승동 칼럼은 <인터넷 날레일 해럴드 트리분> 프랑스 일간신문의 보도를 소개했다. 해군기지 제주건설의 핵심목적 중 하나는 일본 지키기라고 외국전문가들의 얘기를 전해 주었다. 제주도 가마옴에는 일제시대의 유물이 마마자국처럼 남아있다.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 본토를 보호하면서 최후의 전쟁을 벌일 목적으로 2km에 달하는 땅굴을 파고 요새를 구축하다가 원자폭탄 두 개를 맞고 중단했다. 비행장도 남아있다. 원자폭탄이 일 년 아니, 여섯 달 뒤에 터졌다면 어찌되었을까. 그런 뜻에서 만든 땅굴이 아니고 관광자원에서 만든 거라고 우기면 그만 두자.

둘 다 가지려면 욕심이다. 하나는 놓아야 한다. 하늘이 준 천혜의 섬, 지키지도 못할 평화의 섬.

캠퍼스 ‘외로운 인류’ 복학생들이 변했다

대학생들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신입생, 재학생 그리고 복학생. 이 중 ‘복학생’에 대한 이미지는 대학에 들어오기 전부터 형성된다. 미디어를 통해 접한 복학생의 느낌은 뭔가 촌스럽다. 정돈되지 않은 헤어스타일과 얼룩무늬 교련복, 야상복을 입고 사회를 풍자하는 그들의 모습을 떠올리는 데는, 인기프로그램 개그콘서트에서 복학생 유세운과 동혁이형 캐릭터가 한 몫 한다. 이러한 복학생 캐릭터는 70~80세대엔 추억이고, 요즘 대학생엔겐 호기심의 대상이다. 요즘의 복학생들은 어떻게 대학생활을 하는지, 시대가 변한만큼 달라진 그들의 진짜 모습을 만나봤다.

강철웅 (경영학과 2)	복학, 새로운 마음가짐과 출발	강원부 (국어교육 3)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학과를 이끄는 복학생	김석환 (정치외교 2)	삼촌 같은 이미지는 옛말, 이제는 �빠 같은 복학생
--------------	------------------	--------------	------------------------	--------------	------------------------------

강철웅(경영학과 2)씨는 복학과 함께 전과했다. 그는 1학년 때 생명공학부를 다니다가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많은 고민을 했다. 그러다 2009년에 휴학하고 군입대에 지원했다. 군대에 있는 동안 미래에 대한 많은 생각을 했고 전공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2년 동안의 군 생활을 마치고 복학과 동시에 경영학과에 들어왔다. 자신의 꿈을 위해 새 출발을 다짐하며 전과까지 했지만 2년의 공백은 학과 생활 적응을 다디게 만들었고 학교가 낯설기까지 했다.

“원래는 경영학과로 전과하면 공부만 하려고 했어요. 휴학기간 2년 동안 내 인생에 대한 설계를 차근차근 해왔죠. 그것들을 이루려면 ‘공부에만 몰입해야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학과전공에 대한 정보력이 부족해, 학과활동을 등지고 혼자서 아웃사이더처럼 공부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낯설고 새로운 학과지만 다행히 고등학교 때 친구가 경영학과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친구 따라 간 개강파티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 수 있었고 그 자리에서 경영학과 MT 집행부까지 맡게 됐다. 복학과 함께 공부 하고 싶은 학과에서 학우들과 함께 공부하는 게 행복하다고 말하는 강철웅 씨.

그는 “새로운 출발이란 건 이런 거 같아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새로운 기억들을 차곡차곡 쌓는 거죠”라고 말하며 연신 웃음을 비쳤다.

요즘 그는 9월 27일~28일에 있을 경성대학 축제준비에 한창이다. “경영학과만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춤 출 것”이라고 말하는 그는 더 이상 학교가 낯설지 않다. 이러한 학과 활동은 물론이고 학업에도 매진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고 말하는 그에게서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다.



축제 준비에 한창인 강철웅 (경영학과 2) 씨

“자, 공에 좀 더 집중하고 몸에 힘을 빼.” 학생회관 앞 한라터에는 주말에도 학생들이 붐빈다. 단대 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학생들의 연습이 한창이기 때문이다.

한참동안 남녀혼합 축구 연습을 하다가 땀을 식히기 위해 벤치에 앉는다. 벤치에는 성격 좋고 입담 좋은 복학생이 가운데 앉아 휴식시간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든다.

후배들의 웃음을 유도하는 강원부(국어교육 3)씨는 올해 초에 복학했다. 지금은 학과에서 없어선 안될 만큼 ‘미친존재감’의 소유자이지만 이런 그도 처음 복학 했을 때는 학과에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우울한 생활을 보냈다. 같이 점심 먹고 수업 들을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은 복학생으로 제한됐다. ‘남자의 우정’을 운운하며 남자 복학생끼리 대학 생활을 보내기엔 뭔가 적절했다.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했어요. 2년 동안 다니던 학교니까 복학해서 적응 못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는데 막상 복학해서 보니까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같은 학년의 학생들은 대부분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 학과 생활에 적응하려면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활기찬 대학생활을 위해 그는 과대표 선거에 나가서 선출됐다.

“과대표가 되니 정신없이 바빴어요. 그래도 학과 사람들과 많이 친해져서 좋아요. 남자들끼리 학생회관에서 우유포크 정식을 먹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제법 밥 사달라는 후배들이 많이 생겼는데 밥을 살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이제 그는 주변에 항상 사람들을 몰고 다닌다. 학과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리더십을 발휘해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이끈다. 축구연습 중에 자주 헛발질 하는 스무살 후배를 독려하는 것도 그의 몫이다. 혹여 후배가 상처받을까, 살인미소 날리는 것도 잊지 않는다.



후배들과 함께 축구연습 중인 강원부 (국어교육 3) 씨

“저기 테이블 빨리 닦고 여기 술병들 치워주세요.” 호프집엔 계속 들이닥치는 손님들로 정신없다. 연신 주문이 밀려들고 테이블 치울 새 없이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온다. 지난 16일 제주시청 근처의 한 호프집에서 정치외교학과 일일호프가 열렸다. 일하는 사람들 중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는 한 학생이 있었다. 김석환(정치외교 2)씨. 이곳 저 곳에서 후배들의 도움 요청에 응하며 땀을 흘리고 있었다. 셀 수 없이 “�빠”, “형”을 찾는 목소리가 들렸고 그는 그때마다 뛰어갔다.

“성격이 내성적이라 복학하고 불안했어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없을 것 같아서였죠. 그런데 후배들이 계속 찾아주니 마음이 놓이고 한편으론 후배들이 너무 고마워요.”

후배들이 부담없이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삼촌 같은 포스가 아니라 옆집 �빠 같은 편안한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작년에 입학한 김주영(정치외교 2)씨는 올해 그를 강의실에서 처음 만났다. “예전에는 ‘복학생’ 하면 막연히 아저씨 같은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복학생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죠. 외모나 패션도 세련되고 선배로서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패로서 편하게 분위기를 이끌어주니까 더 친근하게 느껴져요.”

선배로서의 위계보다는 학업 동료로서 서로 도우며 오패, 누나로서의 편안한 느낌을 어필하는 게 요즘 복학생의 트렌드다. ‘나는 몇 년 휴학하며 인생의 쓴맛 단맛을 느꼈으니 너희와는 달라’라며 괜히 무게를 잡고 학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지 않으면 아웃사이더가 되고 정보력에서 뒤지게 된다. 시시각각 변하는 대학문화에서 몇 년의 공백을 뛰어 넘어 잘 적응하려고 애쓰는 그들. 오랜만에 마주한 대학에서 신입생처럼 설렘으로 가득한 그들을 위해 반갑게 인사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



정치외교학과 일일호프에서 서빙중인 김석환 (정치외교 2) 씨

만화로배우는 제주어
글 / 김순재(국어문화원연구원) / 그림 / 고아라 (특별기자)
⑨사노롱 후다



▶날말들이
말양: 말고
사노롱 후다: 사느랄다 (물체의 온도나 기온이 약간 찬 듯하다)
임으라: 잃어라

“촌스럽고 후줄근한 인상은 옛말... 적극적인 학과참여와 뛰어난 패션감각으로 복학생 타이틀 무색”

제주대학교 59기수습기자모집

수습기자가되면

- A급 장학혜택** 장학금 및 취재료, 원고료, 식비 제공
- 다양한 취재 기회 제공**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원정 취재/국내외 다양한 기획 취재 및 연수제공)
- 멀티미디어기기 제공** 개인 데스크 및 취재용 카메라, 편집용 컴퓨터
- 현직기자**에게 배우는 기자교육 및 실습 (보도기사작성에서 보도사진 등)
- 차세대 신문제작 시스템**을 이용한 신문편집교육

모집대상 : 아라캠퍼스, 사라캠퍼스 11학번 학생
장 소 : 본관 대학원동 3층 언론미디어센터 내 제주대신문사
문 의 : 제주대 신문사 (754-2277)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언론미디어센터에는 꿈을 찾는 이들 꿈을 꾸는 이들 꿈을 만들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녀도..우리는 두근두근 가슴이 뛰니다.

청춘 20대! 가슴뛰는 일상으로 바자게변실래요?

